

‘인물’ 집중하다 잃어버린 ‘야당本色’

더민주, 김종인 대북·경제 정책 정체성 논란 가중 국민의당 “이승만 국부” “햇볕정책 실패”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북정책 등을 놓고 정체성 논란을 겪고 있다. 야권 분열 이후 양당이 좌우를 뛰어넘는 이질적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그동안 야권 내에서 당연시해온 정책과 노선이 논란의 대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조치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체성 논란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선 대북문제에 대해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와해’, ‘개입’ 언급을 한 이후 보수 진영의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지”며 신중론을 취하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보완론을 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역대 정부가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에 의존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정권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친노(친노무현) 세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남의 한 의원은 18일 “호남 유권자나 진보적 지지층이 김 대표의 발언을 혼란스럽게 여길 수 있다”며 “큰 틀에서 우리당이 취해온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긴 이른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당이 안이다. 총선이 불안하다.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진심에 진심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며 최근 당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에서는 여당의 ‘중북 프레임’ 공세를 차단하고 경제와 민생 이슈를 살려내려면 대북 문제에 대해 유언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역시 창당 준비과정부터 끊임 없이 정체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진 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이다. 당시 국민의당은 ‘당의 지향이 뉴라이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혼란을 치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사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등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도 혼선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대북문제를 두고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더민주에는 김종인 대표의 ‘북한 궤멸론’을 고리로 “차라리 햇볕정책을 포기

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의 적통을 자임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합류 첫날부터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발언했다가 곧이어 “핵 개발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정정했지만 당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동원 전 의원 영입 문제를 두고도 당의 노선 문제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경 진보로 평가되는 정 전 의원 영입이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복 세력이 차원에서 정 전 의원 영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교섭 단체 연설 마친 안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한반도 사드배치 찬-반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미국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구조 등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히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언급하고서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합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는 북한과 거리가 짧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자리 더하기 vs 공정한 한국

새누리-더민주 정책대결 시동

여야는 18일 총선공약을 발표하며 정책대결의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의 지향점을 각각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1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관련 총선 공약의 슬로건은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유턴하고(go)·관광산업은 키우고(go)·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만들고(go)’라는 ‘쓰리고’(3go)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더민주의 이날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정책목표로 한 20대 총선공약의 ‘3대 비전’과 ‘7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용성 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흡수제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더불어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 ‘7대 약속’도 내놨다. 더민주의 구제적 공약인 150개 실천과제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개별 공약을 차례로 공개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박혜자·황주홍 19대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이 18일 19대 국회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면교실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 의원은 1등급 품질인 품알데 하이드가 포함된 목재제품의 유통 문제



박혜자



황주홍

를 고발하고 인천·부산 한 공사, 수협·농협 등 석면 등 석면 노출을 지적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평가다.

“봉선시장, 전통시장 발전 새 롤모델 될 것”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

국민의당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8일 광주시 남구 봉선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봉선시장의 특화된 공동기획 상품개발과 포인트 시스템 등이 구축되면 전통시장 발전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봉선시장의 특성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화동 농산물시장 현대화 즉각 이뤄져야”

김유정 광주 북 갑 예비후보

국민의당 김유정 광주 북 갑 예비후보는 18일 노후화된 각화동농산물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5년 전 지은 각화동농산물시장은 시설이 노후화



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한 번에 한 구역씩 지정, 사업을 마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간담센터 이사장이 18일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 광산 갑 출마예정인 그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풀뿌리 활동에서 축적한 정의로움 신념을 정당정치 영역에서 유능한 실력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를 여의도에 가두는 자 패정치는 지양하겠다”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99% 주권자의 뜻을 묻고 광주시민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 선언

국민의당 김성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실 선임행정관이 18일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출마기자회견에서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중 최하위로, 이중 동구는 광주에서조차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전남도청과 청와대, 국무총



리실 등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광주와 동구 발전에 미력하나마 저의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학식	12,500원	8,500원
학식, 떡갈비	14,500원	9,000원
		5,000원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남	남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코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워너비 B1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서석동